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7. 4 | Vol. 268호

#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 화엄신중 2차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6년 10월 10일 화엄신중 천일기도를 회향한데 이어 10월 15일부터 2차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음력 9월 15일) 입재하여 2019년 7월 11일(음력 6월 9일) 회향하는 이번 2차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 천일의 발원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담물(百年食物)은 일조진(一朝塵)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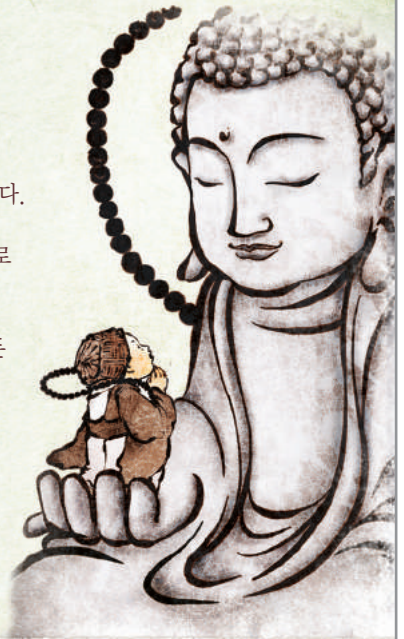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와 같고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자경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몸 낮추는 계절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초발심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불국토의 바다에  
편히 앉게 되나니 이를 일러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걸음, 걸음들이 더디기만 하여 급한 마음 밭에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켜주시기를 발원합니다.

탐욕심이 지은 업으로 뒤틀려 어긋나 악연의 고리에 걸려 든  
인연들이 자재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어긋남의  
고리를 끊고 선한 인연되어 화락하게 하옵기를 발원합니다.

여기, 법왕사 불자님들이 천일의 선을 세웠습니다.  
신심깊은 불자님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모여 천일의 선이  
완성되는 날 소구소원하신 모든 발원이 성취되어  
너도 관세음, 나도 관세음,  
우리 모두 관세음 되게 하여지이다.



##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음 9월 15일)
- 회 향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음 6월 9일)

천일법회 : 합동기도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4층 대적광전에서 약한계 21독,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초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Vol. 268호

- 04 깨침의 향기  
지극한 효심이 불심도 깊다(1)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6 비슬산방  
좋은 친구는 나의 부처이자 보살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육망의 쾌락은 짧고 그 고통은 길다 · 본원스님
- 12 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21)  
싯타타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 16 편역과 주련  
내원암의 관음전과 선원, 설법전 · 전일주
- 20 불교의 보살들  
번뇌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다
- 24 법왕사소식
- 26 법왕사게시판
- 32 해오름소식
- 33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1(서기 2017)년 4월 01일 발행 | 통권\_268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묘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윤,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지극한 효심이 불심도 깊다(1)

원공당 정무 대종사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 목건련 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해내 효심입니다.

목건련 존자의 어렸을 때 이름은 나복(羅卜)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자, 어머니 청제 부인과 슬픔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줄어들기 시작해 하루는 나복이 재산을 3등분한 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는 어머니 생활비로 쓰고 하나는 제가 장사 밑천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버님을 위해 사문(沙門)을 모셔다가 공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복이 외국으로 장사를 떠나자 청제 부인은 신바람이 나서 매일 잔치를 열어 사문에게 공양을 올려야 할 재산까지 탕진해버렸습니다.

3년 후, 나복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청제 부인의 악행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복이 어머니에게 진실을 물어보자, 어머니는 거짓말과 함께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7일 만에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7일 후에 죽고, 고통이 가장 심하다는 아비 지옥(阿鼻地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복은 장사로 번 모든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친구인 사리불 존자와 함께 출가하여 육사외도(六師外道)의 하나인 산자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목건련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열심히 정진하여 마침내 육신통(六神通)을 얻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목건련 존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관(觀)해보니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건련 존자는 안타까움에 부처님께 청하여, 7월 보름 안거 해제 때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 그 공덕으로 지옥의 고통에서 어머니를 구해냅니다.

이처럼 목건련 존자의 신통은 큰 효심으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목건련 존자는 효행제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40여년 전, 제가 수원 용주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용주사는 정조 대왕이 부친인 장헌세자의 능(陵)을 쓰고 건립한 원찰입니다. 정조는 보경 스님에게서 『부모은중경』을 받아,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뜻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는데, 시골 처녀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현모양처’는 여성의 적 이라는 망발을 하던 때였습니

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집도 버리고 이것저것 다 버려도, 반드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여성은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국가의 핵입니다. 핵이 무너지면 국가가 번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선진국도 다 그렇습니다. 가정분규로 세상의 질병과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면 그 밑의 자녀들은 문제없습니다. 효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며, 인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 문화는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은중경』 범문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스승으로 숭선수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녀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 노릇이 더 문제입니다. 효도를 하려고 해도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모 자격증 제도가 올 것입니다. 부모가 되려면 부부(夫婦)부터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부부가 자격이 있으면 부모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계속)

원공당 정무대중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 좋은 친구는 나의 부처이자 보살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불자들은 공부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수행하면서 만나는 인연들을 일컫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도반(道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글자 그대로 ‘도를 깨우치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도반 외에는 ‘선우(善友)’란 말도 있습니다. 글자 뜻을 풀이하면 ‘좋은 친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정도(正道)를 가르쳐 보여 좋은 이익을 얻게 하는 스승이나 친구, 또는 좋은 길로 이끄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들 용어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식(善知識)’입니다. 도반이나 선우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상대의 수행을 돕거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선지식은 자신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수행해서 자신을 앞에서 이끌어줄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선지식이란 《대반열

반경》〈고위덕왕보살품〉에 따르면 ‘중생에게 나쁜 업을 버리고 선한 업을 쌓게 하는 이를 가리키며, 진실한 선지식은 부처와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일체지(一切知)로 가게 하는 문이며 수레이며 배이며 햇불이며 길이며 다리다’라고 하였습니다.

《화엄경》〈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善財童子)는 문수보살을 선지식으로 삼고 53선지식을 만나, 결국 자신도 보살이 되었습니다.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만나는 이유는 선지식이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실천하는 데 본보기가 되고, 수행자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53은 인간이 성불하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반, 선우, 선지식은 우리 불자들의 수행에서 무척 중요한 인연입니다. 어떤 도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수행 방향과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세간이든지 출세간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좋은 친구(善友)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좋은 친구, 스님의 입장에서 도반은 그 만큼 많은 비중을 좋은 친구에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석가족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 시자인 아난다가 부처님께 말씀 드립니다. “대덕이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들이 선량한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은 이 길의 절반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선우로 삼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착한 벗을 가지고 착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은 이 길의 전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친구의 영향이라는 것은 광장합니다. 친구를 우연히 만난 이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겹의 인연이 있어서 만난다기보다는 내가 찾는 친구가 내게 응답해 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할까?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친구가 내게 다가올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나쁜 친구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친구를 원하면 나 스스로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좋은 도반이 되어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 친구 또한 나의 영향을 받아서 내게 더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백생의 윤회에서 우리가 사람 몸 받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더더욱 불법 만나기는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티끌처럼 희박한 확률로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고 거기에다 불법을 만나는 행운까지 얻었으니 이번 생에 좋은 도반이 되도록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 욕망의 쾌락은 짧고 그 고통은 길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꽃과 열매의 관계에 있어,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면 나무에 물이 올라야 하고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 피고, 열매는 꽃을 자양분으로 영근다. 가지와 잎은 흠으로 돌아감으로써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이듬해 새움을 틔우며 싹이 자라고 가지와 잎에 물이 오르면서 결실을 맺기 위해 다시금 꽃이 피었다가 꽃잎이 지면 토양이 될 밑거름이 되어 새롭게 열매가 맺히도록 익어, 꿈식은 시간의 여정은 직접적인 원인[인(因)]과 간접적인 원인[연(緣)]을 성숙시키는 필요한 조건이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쓰러지리라.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승리나 패배를 버리고 즐겁게 산다. 비록 금덩어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현자는 욕망의 쾌락은 짧고 그 고통은 길다는 것을 안다.’

- <법구경>

## 한 여인의 전세(前世) 인과

사뱃티성에 사는 바실라에라는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심한 두통을 앓으면서 고생하며 자랐다. 바실라에

가 처녀가 되어 시집을 갔으나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의지할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 마을 앞을 가로막고 흐르는 강을 건너려고 하였다.

물살이 너무 세, 두 아들을 동시에 데리고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먼저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 안전한 물에 놓혀두고 큰 아이를 데리러 다시 강을 반쯤 건넜을 때였다. 아기 울음소리에 뒤돌아보니 늑대가 아기를 물고는 이미 저만치 달아



나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황급히 뛰쳐 나와 작은 아이를 놓쳐 놓은 곳으로 달려갔지만 늑대의 모습은 이미 저만치 사라진 뒤였다. 그뿐만 아니었다.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던 큰 아이가 이 모습을 본 뒤 그 아이도 강물을 건너기 위해 뛰어들면서 빠른 물살에 휩쓸리며 떠내려가고 말았다.

순식간에 두 아이를 잃어버리고서 그만 넋이 나간 여인은 혼절해 쓰러졌다. 마침 바실리예가 쓰러져 있는 그 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여인을 발견하곤 정신이 깨어나게 하여, 그 동안의 사연을 듣고서는 하는 말이, “나는 전부터 당신 친정집을 잘 아는 이웃이시오. 당신 친정집은 벌써 오래 전에 원인도 모르는 불이 나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 고 하는 것이다.

그 말에 여인은 또 한 번 기절하고 만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여인에게, 그 남자가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다 잊고 장사하는 나하고 같이 살자” 는 말에, 그렇게 같이 하기로 하고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어느날 갑작스런 도둑 떼의 습격으로 남편은 죽고 자신은 끌려가 도둑의 아내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인 도둑이 관가에 잡혀 사형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국법상 도둑의 아내도 함께 물어버리는 법에 따라, 공간이 있는 지하묘

지에 순장을 당했다. 밤이 되어 무덤의 흙을 파는 소리가 들리더니 묘지기가 나타나 “어서 여기서 달이나 나랑 같이 살자” 며 또 그 여인을 구해준다. 또 얼마를 살다보니 묘지기 남편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다.

### 전생의 악업은 현생의 고통

가혹한 시련에 치질대로 지친 바실리예 여인은 ‘자신은 왜 이토록 한없이 박복하고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슬픈 기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며 절망한 나머지 비틀거리며, 아이들을 잃어버린 강가 높은 자리에 가서 몸을 던졌으나 때마침 지나가던 뱃사공이 또 그 여인을 건져주었다.

여인은 ‘나는 죽을래야 죽을 복조차 없구나’ 하며 기막힌 운명에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붉게 물든 저녁 노을, 강변 나무 아래에서 고요한 모습으로 명상에 잠긴 수행승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그 곳으로 옮겨 그 수행승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듯 사연을 말하며 살길을 묻는다.

수행승은 “그대가 무엇 때문에 그 같이 연속적으로 불행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지는 지금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시는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일” 이라고 일러주었고, 여인은 몸을 추슬러 곧장 기원정사로 향한다.

푸른 연꽃과도 같은 부처님의 거룩한 자태에 여인의 마음은 안온함을 느끼며, 그동안의 일들을 부처님께 이야기하였다. 부처님은 가련한 여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과거 생애 시냇가의 한 부유한 장자가 일찍 홀로 되어, 두 아이를 데리고 살던 중 의붓 어머니가 된 여인은 병약한 남편의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고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아이들의 정수리에 독 묻은 바늘을 꽂았다. 너무 어려 말도 못하는 아이들은 자꾸 울기만 할 뿐, 차츰 독에 중독이 된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얼마 후 남편도 죽으면서, 뜻대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여인은 호화스런 대저택에 다른 남자들을 불러들여 쾌락의 즐거움과 부족함이라곤 없는 풍요로운 생활로 누가 보아도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준 부처님은, 그때의 여인이 바로 지금의 바실리에로 태어났으며, 두통을 앓은 것은 그때 두 아이 머리에 독바늘을 꽂은 과보이며, 아이 둘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까닭은 두 아이를 독살한, 그에 상응한 과보이고, 남편과 일찍 사별함은 병약한 남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시택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외로

운 신세가 되어 만나는 남자마다 잇따라 죽으며 남다른 고통을 겪은 것은, 부인으로서 정숙하지 못하고 외간 남자와 정욕에 빠져 쾌락을 즐긴 그 죄업이니라고 말했다.

부처님의 이 같은 전생담을 들은 바실리에 여인은 뜨거운 눈물로써 깊이 뉘우치며 자신의 무거운 죄업을 평생 참회로써 씻고 자 불문에 귀의하여 초기교단의 수행자가 된다.

불전(佛典)은 그를 묘련화 비구니로 기록하고 있다.

- 이 이야기는 잡보장경에 나와 있다.

## 좋은 습관이 좋은 열매 맺어

꽃과 열매의 관계에 있어,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면 나무에 물이 올라야 하고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 피고, 열매는 꽃을 자양분으로 영근다. 가지와 잎은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이듬해 새움을 틔우며 싹이 자라고 가지와 잎에 물이 오르면서 결실을 맺기 위해 다시금 꽃이 피었다가 꽃잎이 지면 토양이 될 밑거름이 되어 새롭게 열매가 맺히도록 익어, 곰삭는 시간의 여정은 직접적인 원인(인(因))과 간접적인 원인(연(緣))을 성숙시키는 필요한 조건이다.

고락이 혼재하는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것은 그릇된 습관과 나쁜 버릇

때문이고, 안정된 행복과 평안을 부르는 것은, 올바른 습관과 길들여진 좋은 버릇에서 비롯함이니 악행은 죄업을 심화시키고, 선업은 적선을 증장케 한다.

〈죄와 벌〉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은 나쁜 습관에 정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상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돈을 위해 펜을 들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정기적인 용돈은 나에게 돈이 생기면 바로 다 써버리는 부정적인 습관을 심어주었다.

항상 뭔가 먹고 싶을 때만 용돈을 받다 보니 먹을 것을 왕창 사버리는 데만 신경을 쓸 수 있었지 돈을 모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난 얻어먹는 것을 싫어하고 사주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친구들과 이것저것 사먹느라 돈을 모을 겨를이 전혀 없었다.

이 안 좋은 습관은 내가 돈을 직접 벌어 보기 전까지 늘 나와 함께 했고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늘 쓰고 싶을 때만 돈을 받는 것은 이처럼 안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자라면서 난 경험을 통해 확실히 인식할 수 있었다.’

바른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면 속게 마련이다. 오욕(五慾)은 급류와 같아서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우니 마땅히 지혜라는 이름의 배나 뗏목으로 그 곳을 건너가야 한다. 어리석은 마음 탓으로 항상 온갖 욕망에 집착하게 되거니와 오취(五趣)<sup>1)</sup> 중에 윤회하면 어찌 벗어날 수 있으랴.

- 〈제법집요경〉

1) 오취 :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세계. 아귀, 축생, 지옥, 인간, 천상





---

## 싯다타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7년 1월호, vol. 267)에서는 보살(수메다)이 담마닷시 부처님(연등불로부터 15번째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담마닷시 부처님은 거대한 어둠을 파괴하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한다. 그때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석천(뿌린 다디)'였는데, 천상의 향과 꽃다발, 음악 등으로 담마닷시 부처님을 공경한다. 그러자 담마닷시 부처님은 '제석천'에게 '미래에 고타마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담마닷시 부처님은 10만년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많은 중생이 고타마를 건너게 한 후, 사라나무 숲속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파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 부처님(dian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사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16번째의 붓다인 싯다타불(siddhattha-buddha)에게 수기 받는 내용을 불종성경(Buddha-vamsa)을 통해 보기로 한다.[불종성경(Buddha-vamsa)\_(CST4: KN-Bvṃ ch.18, vs.1-24) 의역요약]\_\*[아래 주석 1번 참조]

## 1. 싯다타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2] 담마닷시 부처님에 이어서 싯다타라는 지도자가 출현하시는데, 모든 어둠을 파괴하고, 태양처럼 떠오른다. 또한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후, 신을 포함한 [많은] 중생들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고, 법의 비를 내려 신을 포함한 [많은] 중생들이 번뇌의 불을 끄게 한다.

[vs. 3-5] 그리고 비할 바 없는 광명을 가진 그 부처님에게는 세 번의 통찰이 있는데, 첫 번째 통찰은 10만 꼬띠(1조)로 구성된다. 다시 브히마라타(bhimaratha)라는 도시에서 북을 칠 때 90꼬띠(9억)의 중생들에게 두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싯다타]부처님이 훌륭한 도시인 웨바라(vebhāra)에서 법을 설하

실 때, 90꼬띠(9억)의 중생에게 세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vs. 6-7] 또한 두 발 가진 중생 중에서 유일한 그 [싯다타]부처님에게 세 개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asava)가 파괴되고, 흠이 없고, 마음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임이다. 이 흠없는 모임의 세 번의 경우는 즉, 100꼬띠(10억), 90꼬띠(9억), 그리고 80꼬띠(8억)의 아라한들로 구성된다. \*\_[아래 주석 2번 참조]

## 2. 수기

[vs. 8-9] 그때 나( 고파마 부처님)는 망갈라(mangala)라는 고행 수행자(tāpasa)였는데, 강력한 열기가 확산되어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초월지의 힘을 성취하였다. 나는 잠부열매를 가져와서 싯다타 부처님에게 드리는데, 그 정등각자께서는 그것을 받으신 후,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vs. 10-11] “혹독한 고행을 하는 이 결발의 고행수행자를 보아라. 94겁 후에 이 수행자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앓싸타(assattha)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māyā)’라 하고, 아버지는 수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그는 고파마(gotama)가 될 것이다. 콜리따(kolita)와 우

빠뎃싸(upatissa)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 제자가 될 것이며, 이난다(ānanda)라는 시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khemā)와 우빨라완나(uppalavaṇṇ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싸타(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짜따(citta)와 하탈라와까(hattha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웃따라(uttarā)\*와 난다따(nandamāt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타마 부처님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아래 주석 3번 참조)

비할 데 없는 위대한 성자(싯다타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 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싯다타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치 [지금]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자 [나중에 좀 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싯다타]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아래 주석 4번 참조)

[vs. 12]\_내가(망갈라 고행수행자=미래의 고타마 부처님)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 욱더 기뻐지고, 10바라밀(pārami)을 충족하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 3. 싯다타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3-15]\_위대한 성자이신 싯다타 부처님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웨바라(vebhara)이고, 우데나(udena)라는 왕족(khattiya)이며, 어머니는 수팍사(suphassā)이다. 그는 1만 년 동안 집에서 머무는데, ‘꼬까(kokā), 솫빨라(suppala), 꼬까나다(kokanadā) 라는 세 개의 뛰어난 궁전을 가지고 있다. 4만 8천명의 아름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부인의 이름은 소마낫싸(somanassā)이고, 아들은 아누빠마(anupama)이다.

[vs. 16-17]\_인생의 네가지 특징적인 모습(cattaro nimitta)을 본 후에, 가마를 타고 출가한다.

승자(싯다타 부처님)께서는 10개월간 고행정진을 하신다. 인간의 군주이고, 위대한 영웅이며, 최고의 인간인 싯다타 부처님은 범천의 요청이 있자 사순동산(migadaya)법의 바퀴를 굴린다.

[vs. 18-20] 싯다타 대성자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삼발라(sambala)와 수밋따(sumitta)이고, 시자는 레와따(revata)이다. 그리고 최고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시왈라(sivalā)와 수라마(surāmā)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까니까라(kaṇikār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수빠야(suppiya)와 사뭇다(samudda)이고, 으뜸 가는 재가 여성신자는 람마(rammā)와 수람마(surammā)이다.

[vs. 21-24] 그 싯다타부처님의 신장은 60라타나(27m)이고, 황금줄로 장식된 기둥처럼 1만세계로 빛을 발한다. 또한 그 부처님은 무등등과 동등하며, 비할 바 없고, 견줄 바 없는 사람인데, 약 10만년 동안 통찰력을 갖추어 세상에 머문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거대한 빛을 보이고, 제자들의 수행이 만개하

도록 이끈 후, 성취를 축원하고, 제자들과 함께 반열반에 드신다. 최고의 성자이신 싯다타 부처님은 아노마(anoma)숲속 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거기에 뛰어난 담이 세워지는데, 높이가 3요자나(33m)이다.

(계속)

\*주석1 : 여기의 불종성경은 세존이 정각 후 처음 자신의 고향인 까벨라와투를 방문할 때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중신통을 보인 후에 설하였다고 한다. [KN-Bvm-a-gaṇṭharambha-katha]

\*주석2 :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큰 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3 : 불종성경(KN-Bvm ch.2, n. 69)에서는 옷따라와 난다마따를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지만, 앙곳따라 니까야(AN1, n. 262)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주석4 : 원문의 계승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 있는데, 곧단나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

# 내원암의 관음전과 선원, 설법전

전일주 / 문학박사

---





## 1. 내원암 관음전(觀音殿)

一葉紅蓮在海中(일엽홍련재해중)  
 碧波深處現神通(벽파심처현신통)  
 昨夜寶陀觀自在(작야보타관자재)  
 今日降赴道場中(금일강부도랑중)

한 떨기 붉은 연꽃 바다에 있으니,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나타내시네.  
 지난밤 보타산에 계시던 관세음 보살님이,  
 오늘은 이 도랑 안에 강림하셨네.

내원암(內院庵)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의 부속암자로서 동화사에서 서북방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팔공산에서 지기(地氣)가 가장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참선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암자는 1626년(조선 인조 4년)에 유찬(惟贊) 스님이 창건하였다. 1827년(순조 27년) 제월(齊月) 스님이, 1937년 보월 스님이 중창하였지만 6·25동란으로 거의 폐허화되었다. 1958년 비구니 장일(長一) 스님이 가야산 해인사 국일암(國一庵)에서 이곳으로 와 1966년 선방과 요사를 중건하면서 비구니 참선도량으로서 모양새를 갖추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 들어서면, 왼편에는 설법전이 있고 오른편 산자락으로 난 비탈길 입구에는 약수와 내원암중수비가 자리하고 있다. 약수로 물을 축이고 국한혼용문(國漢混用文)으로 된



중수비(重修碑)를 읽으면 내원암의 내력을 알 수 있다. 한 기단을 올라서면 선원이 보인다. 선원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요사채가 자리 잡고 있다. 선원 오른쪽 뒤편 산자락에 관음전이 있는데, 전각 뒤에는 울창한 적송이 둘러져 있어 마치 관음전을 외호하는 신장처럼 느껴진다.

관음전(觀音殿)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예경하는 법당이다. 관세음보살은 세간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관조하여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보살이다.

편액 주련 글씨는 단아한 해서체로 쓰여졌으나, 누구의 필적인지는 알 수 없다. 이 글은 《석문의범(釋門儀範)·관음청 가영(觀音請歌詠)》에 나오는 내용이다.

## 2. 내원암 선원(禪院)

覺性圓融無迷悟(각성원융무미오)  
虛明自照十方界(허명자조시방계)  
萬法出沒於此中(만법출몰어차중)  
便是大作震法風(편시대작진법풍)  
眼皮蓋盡三千界(안피개진삼천계)



鼻孔能藏百億身(비공능장백억신)

각성(覺性)은 원융하여 어지러움도 깨달음도 없으니,

허명하고 밝아서 사방세계를 절로 비추네.  
모든 이치가 이 가운데서 나오고 들어가니,  
문득 법의 기운 크게 떨쳐 일으키도다.  
한 눈꺼풀에 삼천대계가 모두 뒤덮이고,  
한 콧구멍에 백억 개의 몸을 능히 감춘다네.

선원(禪院)은 내원암의 중심 건물이다. 정남향으로 자리하여 늘 밝고 기운이 살아 있는 듯하다. 선원은 정면 7칸, 측면 2칸에 기역자형 팔작지붕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규모는 20여 명의 납자(衲子)를 수용할 수 있다. 하안거(夏安居)에는 가행정진(加行精進)을 하며, 동안거(冬安居) 때에는 가행정진을 하다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용맹정진(勇猛精進)을 한다.

선원의 편액은 해서체로 '내원암(內院庵)'이라고 적혀 있으며, 기둥에 걸린 글씨는 행서체이다. 스님이 쓰신 선필(禪筆)의 분위기이지만, 정확히 누가 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어느 스님의 오도송

으로 보인다. 제2구의 시방계(十方界)는 ‘동·서·남·북·동북·동남·서남·서북·상·하’ 열 방향의 무수한 세계를 말한다. 즉, 중생의 세계가 있는 무량무변(無量無邊)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5구의 삼천계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준말로 고대 인도인이 생각한 전 우주이다. 수미산(須彌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에 사대주(四大洲)가 있고 그 둘레에 구산팔해(九山八海)가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로서 하나의 소세계(小世界)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일불국토(一佛國土)이다.

### 3. 내원암 설법전(說法殿)



絶學無爲閑道人(절학무위한도인)  
不除妄想如來眞(부제망상여래진)  
無明實性卽佛性(무명실성즉불성)  
幻華空身卽法身(환화공신즉법신)  
本非靑白亦非黃(본비청백역비황)  
一念起處萬法來(일념기처만법래)

배움이 끊어진 하릴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은 여래의 참모습이로다.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허깨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본래 청색도 백색도 아니며 또한 황색도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나는 곳에 온갖 법이 찾아온다네.

설법전(說法殿)은 내원암에 들어서면 왼편으로 보이는 3층 당우인데, 대중 법회와 공양의 편리성을 위해 규모 있게 지어진 건물이다.

위 글의 제1~4구는 영가(永嘉) 스님이 지은 <증도가(證道歌)>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이며, 제5~6구는 다른 곳에서 취한 개송이다.

번역의 글씨는 중후(重厚)한 해서체로 쓴 것인데, 화담(和潭) 지호(智溍)라는 분이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련 글씨는 부드러운 필치로 쓴 행초서인데, 누가 쓴 것이라고 관지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서 필가(筆家)의 글씨는 아닌 듯 하고 선필(禪筆)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불가의 대표적인 오도송(悟道頌)인 <증도가(證道歌)>에서 취한 글에서 원문과 다른 곳이 있다. 아마도 잘못 인용하여 생긴 오류인 것 같다.

제2구 ‘不除妄想如來眞’의 ‘如來眞’은 ‘不求眞’ 이라야 옳고, 제4구 ‘幻華空身卽法身’의 ‘幻華’는 ‘幻化’라야 옳다. 원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君不見，絶學無爲閑道人，不除妄想不求眞。無明實性卽佛性，幻化空身卽法身。~’이 된다.

## 번뇌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이된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보살은 수행의 단계에 따라 계위(階位)가 주어진다. 초발심(初發心)은 최초 단계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行道(行道)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단계이다. 불퇴전(不退轉) 단계는 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물러나거나 수행을 중지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생보처(一生補處) 단계로 한 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 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

범어로는 바즈라가르바(Vajra-garbha)이며 금강장, 금강태(金剛胎)라고도 한다.

현겁 16존(尊)의 한 보살이며 금강계만다라 미세회, 공양회 등 외원방단(外院方壇) 북방 4존 가운데 제3위에 위치하는 보살이다.

밀호는 지교금강(持敎金剛), 입험금강(立驗金剛)이며 종자는 바(Va), 삼매야형은 네 개의 독고저(獨股杵)에 의한 정상(井狀)을 하고 있다. 이는 4지(四智)에 만지(萬智)를

포섭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원경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성소작지의 네 가지 속에 온갖 지혜가 갈무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형상에 있어서는 청백색의 몸을 드러내 놓고 왼손은 주먹, 오른손에는 청련화를 쥐고 있으며 꽃 위에 독고저를 올려 놓고 있다. 대체로 이 보살은 현겁 16존의 한 분으로서 그 이름이 모든 대승경전 속에 자주 나타나는데 <화엄경> 제6회 <십지품>에 특별히 열거하여 상수보살로 삼고 있다.

<십지경론>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찌하여 금강장이라고 하는가. 장(藏)은 곧 견고하디에 바탕을 두어 이름한 것이니 비유하면 수장(樹藏)과 같다.

이 말은 나무가 매우 단단하면서도 꽃과 잎을 갈무리하고 때가 이르면 그 꽃과 잎을 돋우어 내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또한 ‘품고 있음’을 장이라 한다. 견고하기는 금강과 같다. 그래서 금강장이라 한다. 이는 이 보살의 선근이 나머지 모든 선근 중에서 그 힘이 최상이어서 금강처럼 견고하고 또한 능히 인천도행(人天道行)을 생성시킨다.

다른 선근들이 이 보살의 선근을 파괴할 수 없으므로 금강장이라 한다. <금강정대교왕경소> 제2권에서는 ‘금강장은 여타의 금강보살 가운데서도 상수이기 때문에 견주(堅主)라고 한다. 일체 모든 금강보살들의 기이하고 희유한 일들이 다 이 금강장보살을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런 이유로 해서 출생과 아울러 입협금강이니 지교금강이니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여타의 금강보살이란 금강당보살, 금강에보살, 금강등보살, 금강예보살, 금강아보살 등처럼 약에 ‘금강’의 호가 오는 보살이다. 수많은 금강보살들이 모두가 이 금강장보살로 말미암아 위로는 부처님이 되기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제도(上求佛學 下度衆生)의 불사를 짓는 것이다.

###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범어로는 마하스타마프라프타(Mahastham aprapta)이며 대정진(大精進) 또는 득대세(得大勢), 대세지(大勢至)라 번역한다. 또는 줄여서 대세(大勢), 세지(勢至)라고도 한다.

아미타불에게는 자비문과 지혜문이 있는데, 왼쪽의 보처보살인 관세음보살이 자비문을 맡고 있음에 대비하여 대세지보살은 오른쪽의 보처보살로서 지혜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 보살은 그가 지닌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세계와 일체중생을 두루 비추어 삼도(三途)의 고통을 여의고 위없는 깨달음을 향한 보리의 힘을 얻게 하므로 대세지라고 이름한다.

<관무량수경>에서는 대세지보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보살의 크기는 관세음보살과 같고 그 원광의 지름은 125유순이며 250유순을 비춘다. 온몸에서 나투는



광명은 자마금색으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비추는데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은 다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보살의 한 모공(毛孔)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보살의 이름을 끝없는 광명 즉 무변광(無邊光)이라 한다.

이 보살의 보배관은 500가지의 보배로 장식되어져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배꽃에는 500여개의 보배꽃받침이 있으며, 그 낱알의 꽃받침에는 시방세계의 청정 미묘한 불국토의 드넓은 모습이 다 나타나 있다고 한다. 또 발을 디디면 삼천세계와 마군의 궁전이 진동하고 그 울리는 곳마다 5백억 송이의 보배꽃이 피고 그 꽃은 극락세계의 연꽃에 필 연꽃과 같다고 한다.

또한 앉을 때에는 칠보로 된 국토가 한 순간에 흔들리며, 그 울림은 아래쪽으로는 금광불국토까지 이르고 위쪽으로는 광명불국토까지 이른다고 한다. 정수리에 보배병을 얹고 있으며 항상 아미타불의 바른편에 시립한다. 아미타불이 임종하는 중생을 맞으러 올 때 연꽃을 든 관음보살과 함께 합장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보살이다.

한 번 설법을 하게 되면 수많은 대세지보살의 분신들이 극락세계에 모여들며 이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음성만 들어도 곧바로 교화를 입고 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

미타삼존(彌陀三尊)을 일컬을 때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된다.

### 묘음보살(妙音菩薩)

범어로는 가드가다스마라(Gadgadasvara)이며, 번역한 이름으로는 묘후(妙吼), 묘음(妙音)이라 한다. <정법화경>에서는 전자를 쓰고 있고 <묘법연화경> 제24품에서는 후



자를 쓰고 있는데 후자쪽이 더 많이 알려진 이름이다.

동방의 정화수왕지불(淨華宿王智佛)이 계시는 정광장엄국(淨光莊嚴國)에 머물고 있는 보살이다.

옛적에 묘장엄왕의 왕후 정덕(淨德)부인이 운뇌음왕불(雲雷音王佛)에게 10만 가지의 악기로 1만2천년 동안 연주하여 음악 공양을 올리고 아울러 팔만사천의 칠보 바리때에 향기로운 음식을 받들어 공양한 공덕으로 정화수왕지불이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 이때의 이름이 묘음으로 바뀐다.

석가모니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사바세계에 와서 법문을 듣게 된다. 묘음보살이 몸을 한 번 움직이면 대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온갖 칠보의 연꽃이 비내

리듯 하며 백천 가지의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는 거대하고도 장중한 오케스트라가 자연스레 펼쳐지는데 이 악기들은 연주하는 자가 없이 스스로 그렇게 소리를 낸다고 한다. 따라서 묘음보살은 엄청난 위신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묘음’이라는 그 이름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이 보살의 모습은 <법화경> 묘음보살품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이 보살은 눈이 광대해기가 푸른 연꽃잎과 같고 그 청명함은 백천만개의 달을 합한 것처럼 눈이 부시다. 그 얼굴은 단정하여 이보다 뛰어난 이가 없고, 몸은 진금색으로서 무량한 백천의 공덕으로 장엄되어 그 위덕이 한량없고 광명이 그 몸으로부터 나와 온 세계를 두루 비춘다. 낱낱의 상호가 원만구족하여 마치 나라연(那羅延; 금강역사)의 견고한 몸과 같다. 이 보살은 수많은 삼매를 증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겨 드는 삼매는 보현색신삼매(普現色身三昧)이다. 이 삼매는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라 하기도 한다. 묘음보살의 일정한 모습이 없는 것은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34용신을 나투므로 일체의 색신을 다 나타내는 삼매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정광장엄국토에 돌아가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

# 법왕사 소식

## 대적광전 담집 및 단청불사 완공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의 담집과 단청불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이 9m에 달하는 웅장한 대적광전의 담집과 단청불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한 기도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완공을 기념하는 불사를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은 1인 1만원입니다.

## 제33회 백고좌법회 봉행 중

법왕사 제33회 백고좌대설법회가 지난 2월 14일 입재하여 오는 5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법회인 제33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 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불교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삼진날 춘계 합동영가천도재 접수

오는 3월 30일 음력 삼월 삼진날 춘계 합동영가천도재를 접수 중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오백나한상 봉안할 불단과 담집 완공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에 오백나한상을 봉안할 불단과 담집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번 나한상 불단과 담집 완공으로 대적광전은 더욱 여법한 기도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편 오백나한상 봉안 불사가 진행 중이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은 1인 108만원입니다.

## 백고좌 이동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9일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으로 삼사순례 이동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들 세 사찰은 오대산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로 특히 적멸보궁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로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씩 참배하는 도량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봉행



정유년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가 지난 2월 12일 법왕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법왕사 광장에 조성한 대형 달집에 5백여 불자들이 각자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편지지에 적어서 성취를 기원하고 액난소멸을 발원하면서 달집을 태웠습니다.

## 신천 건너는 징검다리 완공



파동에서 신천을 가로질러 법왕사로 건너는 징검다리 공사가 개통되었습니다. 징검다리가 개통되어 수성못 오거리나 파동에서 법왕사에 오기가 한결 수월해졌으며 주변 경관도 매우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 정유년 윤5월 생전예수재 봉행

정유년 윤5월을 맞이하여 오는 5월 31일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법회를 입재합니다. 생전예수재란 윤달이 드는 해에 사후에 치를 49재를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법회로 크나큰 공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교의 고

유한 의식으로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3월 5일부터 팔상성도 특별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3월 5일(음 2월 8일)부터 3월 12일(음 2월 15일)까지 8일 동안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팔상성도에 따른 특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생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되새겨 더 깊고 넓은 신행의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제48회 법왕사 경로잔치 열려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29일 토요일 복지관 전실에서 지역 어르신 1천 여분을 초청하여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고 흥겨운 잔치 한 마당을 베푸는 경로잔치를 엽니다. 법왕사 개원 이래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해 온 경로잔치는 수성구와 남구 등 법왕사 주변 지역 어르신들의 신나는 잔치로 자리잡았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널리 알려져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차 천일기도 봉행 중

법왕사에서는 2016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 1천일 동안 제2차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일기도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회 축원을 올리며 음력 초하루와 보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특별기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직도 접수중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 오신 법우님

우정미 이상정 김희진 손종수 박성봉 배정환  
설미범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  
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 사보도움 주신 분

박정숙 20부 백월순 20부 김분용 20부  
보광월 100부 박만호 2만원 신광옥 2만원  
김추석 2만원 김정숙 권오국 500부  
해오름요양원 가족 일동 300부 최태희 50부  
이임숙 200부 백법성행 200부 권순득 100부  
이세정 100부 이재학 50부 이세정 50부  
해오름요양원 500부 선진스님 주원스님  
법안스님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  
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 법사비 올리신 분

관음회 회원 일동 이정상

## 공양 올리신 분

### ◎ 떡공양 올리신 분

김분용 김상한 양영갑 권윤경 김봉조 문선재  
이채원 박영숙 이세정 권상태 양영갑 김휘성  
제갈선(성도재일) 양문갑(성도재일) 제갈선(초하루)  
이세정 양영갑(관음재일) 양문갑(관음재일)  
양영갑(초하루) 양문갑(초하루) 사공순옥  
이영석 전대근 임재형 이세정 신용흥 제갈옥  
제갈란 이세정 이용웅 이세정 양영갑 양문갑  
이정현 우연희 박윤자 김복남 김판돈 박희수  
양혜진 이세정(관음재일) 이종량(관음재일)  
강정현 신동애(지장재일) 양영갑 양문갑  
박분남 조철재 이세정(방생) 김준범 박종성

이마하심 박종성

### ◎ 공양미 올리신 분

김은지 사공관 심보현 김해승 신병기 성 총  
권지현 김순락 김판돈 박동근 박태현 장시덕  
이진옥 서미희 김주현 심보현 김정석 이세정  
차재민 이승환 최홍규 심동원 홍분희 홍분희  
권지현 김영란 성 윤 권현구 심보현 김간우  
김호연 심영호 이수월심 우연희 박해진  
김상희 김상희 심재용 제갈옥 신병기 김동진  
김종구 김호연 김휘성 이세정 윤다경 배기준  
류동주

### ◎ 불기 올리신 분

박종성

### ◎ 물품 올리신 분

노수정(버섯) 김순태(버섯) 이영석(휴지)  
양영갑(휴지) 손영호(소금) 설미범(소금)  
박경영(A4) 나영동(소금) 양영갑(타올)  
황래환(버섯) 하경용(버섯)

###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이재우 이상훈 이지혜 오진환 김형순 김호연  
이재우 이분근(우과) 사공순옥(방생 도시락)  
구실상화(방생 도시락) 강유미(방생 도시락)  
김근태(방생 음료수)

### ◎ 승복 올리신 분

우연희 2벌

###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정근순 박소영 박은영 허정현 백경원 이지송  
신성가스 전태일 정근순(합동차례)  
이정상(방생 과일공양 일체) 권영숙(방생과일)

양영갑 전태일 초하루 과일공양 일체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정인순 박근수 홍분희 최옥남 박남희  
김희숙 이진숙

◎ 꽃공양 올리신 분

곽종란 김근태 이상훈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 불사 올리신 분

◎ 대적광전 인등 올리신 분(왼쪽 인등)

128 김기수 129 사공순옥 130 김상희 131 강명진  
 132 김효신 133 강정민 134 이두이 135 최영곤  
 136 권숙자 137 유광식 138 최은진 139 유희원  
 140 유주원 141 차재민 142 최은정 143 차현우  
 144 조광호 145 김점행 146 박혜진 147 박종성  
 148 나은정 149 박세은 150 박경훈 151 박수정  
 152 박도현 153 임귀연 154 배수진 155 박미희  
 156 배지훈 157 배준상 158 박정아 159 배두원  
 160 배해동 161 박분남 162 배수현 163 정우득  
 164 배수진 165 남현우 166 서현숙 167 남명진  
 168 김환호 169 남동윤 170 김민서 171 박수영  
 172 이서현 173 이승빈 174 이이병재 175 권민기  
 176 전진양 177 이지은 178 이이원벽 179 이선재  
 180 정순옥 181 이채원 182 이지우 183 조갑래  
 184 이나경 185 이승현 186 정은정 187 최상윤  
 188 강지원 189 최민석 190 최승현 191 김추석  
 192 이보련화 193 김은현 194 김원희 195 김태봉  
 196 허대성화 197 박창근 198 박순자 199 이용출  
 200 이광민 201 이우찬 202 이현주 203 최금부  
 204 최태희 205 채용자 206 박호황 207 서필희  
 208 박민규 209 박지혜 210 구계양 211 이상호  
 212 이선영 213 이종진 214 공진웅 215 이상태  
 216 임상덕 217 이성훈 218 이정호 219 이주현

220 김혜정 221 이나경 222 이재진 223 김상원  
 224 이은선 225 김태혁 226 김민제 227 장두조  
 228 이우준 229 이창희 230 이다영 231 김종황  
 232 이영란 233 김근태 234 김민정 235 윤옥순  
 236 백철기 237 심규암 238 권영숙 239 심혜정  
 240 심소미 241 이권삼도 242 이김점미  
 243 이권영구 244 심영보 245 손분남  
 246 이승엽 247 이현주 248 이서범 249 이채원  
 250 이준엽 251 김외환 252 김연경 253 김주현  
 254 최영문 255 최유영 256 백경원 257 김성호  
 258 김연주 259 정경순 260 이승호 261 이승민  
 262 이지현 263 김영애 264 최재훈 265 이은미  
 266 최윤재 267 임석민 268 정옥선 269 임태혁  
 270 임진숙 271 임은숙 272 김종도 273 손복남  
 274 김미숙 275 임정호 276 김은경 277 이금옥  
 278 권중환 279 김성자 280 권정룡 281 권미란  
 282 전현진 283 김영국 284 김도심화  
 285 강선옥 286 김명미 287 김윤미 288 김달호  
 289 김현서 290 이세정 291 정 돈 292 정국영  
 293 정시영 294 장영미 295 권철용 296 정정자  
 297 권용진 298 권용애 299 이정철 300 고영자  
 301 이윤숙 302 이석규 303 이도규 304 최민희  
 305 이준범 306 이준민 307 아 기 308 이현자  
 309 이승환 310 이승민 311 송영선 312 이준우  
 313 박이자 314 김수곤 315 김우동 316 김팔남  
 317 김주현 318 김태현 319 이이경철  
 320 이김경남 321 이이영수 322 김판돈  
 323 정용진 324 김홍근 325 김성근 326 채윤미  
 327 김나현 328 강점선 329 김태현 330 김종호  
 331 김양순 332 김찬우 333 김민서 334 김의목  
 335 박세미 336 김병기 337 김정옥 338 김지울  
 339 차윤길 340 차남석 341 조인범  
 342 권금강행 343 김성호 344 이정숙  
 345 이재현 346 권봉식 347 권미정 348 이병순  
 349 공세표 350 공민재 351 이연정 352 공주희

353 류윤만 354 류희승 355 류주연 356 강희목  
 357 강선규 358 강동규 359 임예수 360 장선미  
 361 안명희 362 김재백 363 김민경 364 윤종수  
 365 채순금 366 권준희 367 권준엽 368 김분남  
 369 정길수 370 김인수 371 김수라 372 김보리  
 373 김연정 374 난김정달 375 난이수옥  
 376 난김연섭 377 난김 엽 378 난장청자  
 379 난김수현 380 우동진 381 우정현  
 382 우연정 383 김호연 384 윤견불심  
 385 김경희 386 김선희 387 이동창 388 이준희  
 389 이정엽 390 권순경 391 조갑순 392 권우현  
 393 권준수 394 송재혁 395 구영미 396 구제철  
 397 구제욱 398 구도근 399 윤경선 400 김상희  
 401 김수진 402 심재용 403 강추월 404 심동원  
 405 신명희 406 심해령 407 심해선 408 심영호  
 409 박진주 410 심유림 411 이재복 412 정미화  
 413 이승언 414 이승민 415 박종환 416 이정자  
 417 박유진 418 박영주 419 이은숙 420 이진욱  
 421 남기덕 422 이동재 423 이동주 424 김영목  
 425 최장만 426 김민섭 427 김진경 428 김강민  
 429 김경진 430 김카야 431 와타나베 히로유키  
 432 이길하 433 독고보겸 434 이승훈  
 435 이승현 436 양을순 437 나근형 438 나진형  
 439 채규호 440 윤운근 441 채원석 442 채홍석  
 443 정경숙 444 채수빈 445 채예은 446 여희용  
 447 김미수 448 여지원 449 여지윤 450 유경수  
 451 김태희 452 유혜미 453 유상민 454 김세영  
 455 배성한 456 송운선 457 배태홍 458 장미야  
 459 김주석 460 김현숙 461 박동환 462 박아름  
 463 난박무순 464 난권승모 465 이갑순  
 466 손형필 467 손형익 468 오진환 469 김정순  
 470 오장건 471 오정임 472 오민정 473 김은주  
 474 박찬민 475 손병희 476 최남구 477 최남익  
 478 서상규 479 서승희 480 김기현 481 김동주  
 482 김소라 483 최귀남 484 김동관 485 김유리

486 김병국 487 황미선 488 안진미 489 백수정  
 490 백승혁 491 이창우 492 윤미영 493 이상윤  
 494 이상준 495 이강로 496 박옥자 497 이정민  
 498 최중길 499 정 영 500 최용석 501 김은영  
 502 최성윤 503 최은비 504 최왕석 505 류수민  
 506 최교빈 507 정영웅 508 이원숙 509 정민수  
 510 김창월 511 이영수 512 이강수 513 이보화  
 514 이태호 515 오오한연 516 난이재식  
 517 난박수용 518 류정숙 519 정도환 520 정덕환  
 521 김천엽 522 이점순 523 김재훈 524 김재석  
 525 조현갑 526 조민규 527 채연수 528 채동엽  
 529 홍효진 530 이민규 531 장승환 532 최창숙  
 533 장지훈 534 장지훈 535 임지영 536 장연우

### ◎ 일년동 올린신 분

35 이범일 36 김말순 37 조월호 38 김병택  
 39 김하나 40 이석진 41 이창한 42 우종원  
 43 김종열 44 최영근 45 김상수 46 이정란  
 47 여희용 48 이종량 49 홍흥근 50 장성용  
 51 전주수 52 박수영 53 장승환 54 이현철  
 55 여택동 56 여영동 57 전상수 58 김판돈  
 59 김점행 60 신구자 61 최침임 62 이상태  
 63 박효기 64 권봉환 65 김용열 66 차수열  
 67 박익건 68 우영근 69 홍분희 70 권순예  
 71 김희동 72 김진아 73 하진석 74 홍순영  
 75 홍권표 76 홍정표 77 홍명진 78 김대근  
 79 김정수 80 최홍규 81 사공관 82 공세표  
 83 김명진 84 송형석 85 김종환 86 전태일  
 87 조춘권 88 조원일 89 조성혁 90 서태희  
 91 이준영 92 이태희 93 정태중 94 서규선  
 95 이재준 96 신광욱 97 박종철 98 박종민  
 99 박근수 100 김병기 101 손대천 102 이팔운  
 103 박경욱 104 김창월 105 송상수 106 장재달  
 107 박정목 109 김종수 110 김영수 111 한금복  
 112 김옥출 113 이수희 114 오성룡 115 이제문

- 116 권태신 117 권도준 120 장기면 121 나영욱
- 122 김진호 123 추수인 124 유유남 125 권상구
- 126 김영식 127 김팔경 128 김찬호 129 김선희
- 130 이한호 131 김경미 132 김상원 133 류종렬
- 134 조영석 135 류윤형 136 엄희섭 137 이대석
- 138 김상석 139 박재근 140 김세환 141 이동학
- 142 최말순 143 박경민 144 최일근 145 박춘복
- 146 이순석 147 김재석 148 최상홍 149 한선동
- 150 노동근 151 최유자 152 장구찬 153 곽희순
- 154 송홍집 155 곽창영 156 이상식 157 이병훈
- 158 손홍락 159 김만준 160 류시환 161 김태수
- 162 김경식 163 안주선 164 장정수 165 최준자
- 166 류현필 167 이상락 168 김중태 169 도종신
- 170 최성진 171 이상욱 172 이상호 173 태원
- 174 정연화 175 정순덕 176 이종화 177 박재술
- 178 여축동 179 장백련화 180 김재웅 181 서병선
- 182 임필욱 183 오광일 184 서복만 185 김수근
- 186 유기상 187 최옥선 188 김일선 189 정창근
- 190 장종규 191 이강복 192 이원택 193 배수진
- 194 배준상 195 차장근 196 안병목 197 조준형
- 198 김태익 199 허대구 200 이종석 201 한주형
- 202 채성백 203 채희재 204 문덕용 205 손종수
- 206 장종표 207 신용술 208 정종인 209 남상호
- 210 권태은 211 정태진 212 권혁일 213 신사훈
- 214 서재우 215 권기범 216 이구방 217 강원우
- 218 양현형 219 김명수 220 박찬수 221 권봉관
- 222 박정명 223 김광렬 224 이철수 225 최윤석
- 226 최용식 227 김분옥

◎ 꽃등 올린 분

- 1 백대행심 2 박해진 3 오난옥 4 김종황
- 5 박영숙 6 신종수 7 최태희 8 조영부
- 9 전병혁 10 권상태 12 진정애 13 김봉원
- 14 김상한 15 김영홍 16 권봉환 17 김순자
- 18 신종호 19 박영승 20 천중철 21 박정순

- 22 배해동 23 양영갑 24 금태운 25 양문갑
- 26 김임태 27 조현갑 28 조민규 29 정정교
- 30 박대희 31 이재학 32 권택훈 33 권지현
- 35 권도현 36 최재훈 37 이세정 38 이향숙
- 39 하경순 40 임성녀 41 유유남 42 김수덕
- 43 이상열 44 이동하 45 권범수 46 아우영
- 47 신자원 48 최종길 49 천 인 50 오진환
- 51 박종연 52 김수종 53 임귀현 54 배수진
- 55 김명국 56 김기훈 57 정도환 58 김경미
- 59 박홍렬 60 송지은 61 조기석 62 이유태
- 63 최문석 64 김천업 65 문국연 66 권춘자
- 67 서정훈 68 심명오 69 문충덕 70 박희수
- 71 고명환 72 박두리 73 이효조 74 임선빈
- 75 김하균 76 박이자 77 김호연 78 이현자
- 79 전정광 80 김진희 81 박종기 82 성불행
- 83 이수동 84 김상수 85 손태익 86 김기효
- 87 이정철 88 김은곤 89 홍애분 90 김우동
- 91 박장식 92 이정숙 93 김순덕 94 오규동
- 95 오승민 96 채규호 97 이병은 98 김병기
- 99 서동남 100 이길하 101 신명균 102 신현수
- 103 최석돌 104 권기욱 105 장찬진

◎ 오백나한 불사하신 분

- 1 신현중 2 이종환 3 김근태 4 박범국
- 5 성 윤 6 김의환 7 박동근 8 사공순옥
- 9 권오삼 10 민기주 11 권지용 12 권민중
- 13 김기덕 14 손혁준 15 이세정 16 김기환
- 17 김정호 18 김정숙 19 신나현 20 신명균
- 21 신광옥 22 이현숙 23 박상익 24 박범수
- 25 정현균 26 정효교 27 정정교 28 이영호
- 29 이준목 30 정민지 31 백복순 32 정연호
- 33 오진환 34 연명석 35 백경원 36 사공관
- 37 최남규 38 류윤만 39 배해동 40 박두리
- 41 정성욱 42 서정훈 43 최옥남 44 이정상
- 45 박남희 47 김호연 48 김주양 49 박종민

50 고연숙 51 김임태 52 신정옥 53 김상수  
 54 박근범, 김현형(사광상사) 55 오재대  
 56 이경자 57 강유미 58 이승민 59 이진희  
 60 강선옥 61 박해진 62 백철순 63 정민경  
 64 최태회 65 박준현 66 최용석 67 장우성  
 68 박종환 69 김민정 70 조창신 71 김수곤  
 73 이강복 77 금태운 87 백대행심

### ◎ 본당 일년등 올리신 분

1 여희용 2 이은숙 3 이진옥 4 남기덕 5 이동재  
 6 이동주 8 전충훈 9 강유미 10 이재복

### ◎ 영가등 올리신 분(복위자)

1 우종원 2 최태회 3 여택동 4 여택동 5 박수용  
 7 최재섭 8 장정수 9 서명희 10 황래환 11 유기상  
 12 박경민 13 송병하 14 김익환 15 이영찬  
 16 심보현 17 이임숙 18 채상백 19 김동훈  
 20 문충덕 21 조현갑 22 문덕용 23 박정명  
 24 최용식 최중문

### ◎ 산신인등 올리신 분

53 최창원 268 배기준 30 최정옥 29 최문석  
 287 송경미

### ◎ 본당인등 올리신 분

623 변우성 458 이목자 459 조영하  
 460 조우용 575 박소범 576 정월선  
 610 김남호 624 박재호 625 광대현

### ◎ 만불전 1인1원불 봉안하신 분

3544 난권무길 3545 이유태 난송상수 이점선  
 난권무길 이유태 김정옥 김일우 전미진

### ◎ 단청불사 올리신 분

세광하이테크 권지현 권도형 구실상화

백법성행 윤건불심 김기춘 권은정 이영광  
 김판돈 이상훈 전장애 이유영 전태일 윤창환  
 전재술 김중덕 최재훈 김우영 정근순 박영민  
 권동근 권민성 권나경 송재식 김희열 김민균  
 전재술 윤동현 전배근 박오순 전소윤 전찬중  
 이경자 윤창환 김경희 김진희 김선희 김윤주  
 권은정

### ◎ 한평불사 올리신 분

김정국(3평) 심수은(4평) 최민우(2평) 권순예(4평)  
 이승환(1평) 권일스님(1평) 최민우(2평) 김제경(2평)  
 박성호(2평) 함혜영(1평) 정경화(1평) 박은영(1평)  
 김성훈(1평) 전형진(1평) 이재광(2평) 권오삼(10평)  
 권오국(1평) 민기주(50평) 권순예(1평)

### ◎ 부처님 복장물 올리신 분

최남구

### ◎ 범종불사 올리신 분

이용직 이보화 정순애

### ◎ 사업등(단청) 올리신 분

1 세광하이테크 2 세광금속 3 조병안 치과의원  
 5 지오씨엔아이 6 경일신경과내과 7 김경자  
 8 우성건설 9 전주맛집 10 운불련 회원 일동  
 11 금강철강 12 길보자동차·보광직물 13 창신중기  
 14 김진성 15 신진정밀 16 세기보청기  
 17 청송약수삼계탕 18 대경정밀 19 만보한의원  
 20 자산한의원 21 YM부동산 22 한진기삭삭당  
 23 선재수학학원 24 뉴스킨 25 참삼가마 찜질방  
 27 동원토건 28 신의내과 29 (주)동호정밀  
 30 권오삼우주식회원일동 31 정원전설

### ◎ 대등 올리신 분

1 박상익 2 신암병동 3 이용욱 5 광진크레인

6 세원산업 7 바른정당 주호영  
8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9 수성구청장 이진훈

### ◎ 대등(2) 올리신 분

1 동원토건 2 거사림회 3 신장회 4 지장회  
5 관음회 6 산신회 7 일심회 8 자비회  
9 우담바라합창단 10 서각회 11 불화반  
12 요양원 직원 일동

### 왕생극락하옵소서

- ◆ 언정화자 영가의 막재가 1월 8일에 있었습니다.
- ◆ 언박재상 영가의 막재가 1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언채종순 영가의 막재가 1월 25일에 있었습니다.
- ◆ 언조복래 영가의 막재가 1월 29일에 있었습니다.
- ◆ 언박재상 영가의 기제사가 1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언박점환 영가의 기제사가 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최재훈 복위 천도재가 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언김종국 영가의 초재가 2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언권무길 영가의 막재가 2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언정지옥 영가의 초재가 2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언이덕순 영가의 초재가 2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이채원 복위 천도재가 2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언김학군 영가의 기제사가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언이덕순 영가의 초재가 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최재훈 복위 천도재가 2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언최민기 영가의 초재가 2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언이숙자 영가의 기제사가 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 ◆ 언최시경 영가의 기제사가 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 ◆ 언김유경 영가의 막재가 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 ◆ 언김봉남 영가의 기제사가 3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언송상수 영가의 초재가 3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언허명수 영가의 초재가 3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언김종국 영가의 막재가 3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언이정화 영가의 초재가 3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 언정지옥 영가의 막재가 3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언강분자 영가의 초재가 3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언이덕순 영가의 막재가 3월 25일에 있었습니다.
- ◆ 언이기범 영가의 기제사가 3월 25일에 있었습니다.
- ◆ 언이정순 영가의 기제사가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법왕사 거사림 회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남성 불자들의 모임인 거사림 회원을 모집합니다. 법왕사에 재적 중인 거사(남성 불자)이면서 신심이 깊고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거사림이 결성되면 매월 두 차례 정기법회를 가지며 연중으로 사찰 순례법회나 기타 수행,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뜻 있는 거사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거사림 법회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저녁 7시 법왕사 대적광전

# 해오름 요양원 1월, 2월, 3월 소식



## 달집태우기

2월 11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범왕사 마당에서 연중행사인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해오름 요양원 가족들과 어르신들, 보호자님들 외 신도님들의 소원이 담긴 달집의 불길에 활활 잘도 타 올랐습니다. 이 불길에 담긴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하모니카 공연

정유년 첫 해 처음 방문하신 하모니카 봉사단원들께서 모두 산타 모자를 쓰고 선물처럼 등장하셨습니다. 연주하시는 모습이 하모니카 소리처럼 친근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로 멋진 연주를 해주시고 건강차와 빵까지 손수 준비해 오셔서 어르신들의 무한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 최단장 공연

매달 둘째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최단장 공연단인데요.~ 이날도 역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어르신들에게 춤과 노래로 즐거움을 드렸고 참여하신 어르신들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최단장 공연 덕분에 모두가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욕창 예방교육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피부가 상하는 것을 '욕창'이라 하는데 수급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욕창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욕창은 초기발견과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본 요양원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식사 등으로 욕창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순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유)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씨포터즈(와이나들이) 친한친구(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놀이치료) 그루터기(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2월~2월)

### ◎ 수입내역

####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4만원	김민주 3만원	김주현 3만원
강선옥 15만원	김봉숙 1만5천원	김진성 3만원
강소남 1만5천원	김성의 3만원	김진현 1만5천원
강심규 5천원	김수근 1만5천원	김진현 5만원
강영도 4만원	김수라 3만원	김진현 3만원
고연숙 3만원	김수원 1만5천원	김진현 3만원
고재욱 6만원	김수윤 1만5천원	김진현 6만원
구정대 6만원	김수자 3만원	김필남 1만원
권계화 3만원	김숙희 3만원	김혜자 1만5천원
권수미 1만원	김순덕 3만원	남기웅 3만원
권숙자 1만원	김순연 2만원	노귀자 1만5천원
권순득 3만원	김순태 3만원	노수정 3만원
권순미 3만원	김양소 3만원	도순자 1만5천원
권순영 3만원	김영호 3만원	도화순 1만5천원
권순칠 3만원	김영희 1만5천원	독고보경 3만원
권영철 1만5천원	김옥희 1만5천원	류윤만 3만원
권오관 6만원	김외자 6만원	박경자 1만5천원
권오국 3만원	김외환 3만원	박귀분 3만원
권춘자 9만원	김용태 3만원	박남희 9만원
금명섭 1만5천원	김우영 3만원	박대희 1만5천원
김경자 3만원	김원형 6만원	박동규 1만5천원
김경호 3만원	김은주 2만원	박상용 1만원
김기덕 6만원	김의목 3만원	박성숙 1만5천원
김기수 6만원	김임태 1만5천원	박성용 1만5천원
김대현 1만5천원	김정규 1만5천원	박성은 1만5천원
김만기 1만5천원	김정숙 1만5천원	박성후 6만원
김명옥 3만원	김정숙 1만5천원	박수진 3만원
김미자 3만원	김정순 9만원	박순남 1만5천원
김미정 3만원	김정임 3만원	박순영 1만5천원
김미희 2만원	김정자 1만5천원	박월태 4만5천원

박인철 3만원	양니영 1만5천원	이재봉 1만5천원
박정묵 3만원	양봉률 3만원	이전희 1만5천원
박종규 3만원	양지영 3만원	이점에 6만원
박중환 3만원	양혜진 3만원	이정숙 3만원
박치민 1만5천원	엄세비 3만원	이정연 1만5천원
박희조 1만5천원	여택동 1만5천원	이정옥 3만원
반룡사 3만원	오난옥 1만5천원	이정화 3만원
배수현 6만원	용마관음사 9만원	이정희1만5천원
배하수 3만원	우정미 2만원	이정희 9만원
사공관 6만원	유경희 3만원	이종희 1만5천원
서동남 3만원	유국환 7만원	이준우 1만5천원
서정희 3만원	유국환 8만원	이채원 3만원
서치경 3만원	유명옥 3만원	이하예진 2만원
서호정 6만원	윤윤근 3만원	이현기 3만원
석종순 3만원	이경자 3만원	이현옥 3만원
성인자 3만원	이금옥 3만원	이호동 1만5천원
손복남 3만원	이남희 3만원	이효조 3만원
손수경 3만원	이명숙 3만원	임상덕 3만원
손수연 3만원	이명희 3만원	임예숙 3만원
송민경 3만원	이병노 3만원	장성규 1만5천원
송정숙 1만5천원	이병희 3만원	장우성 6만원
시명숙 3만원	이복희 3만원	장재혁 1만5천원
신구자 1만5천원	이상혁 3만원	장찬규 1만5천원
신돈식 3만원	이석규 15만원	장효주 1만5천원
신세호 3만원	이성자 3만원	정경석 6만원
신임선 1만5천원	이성환 1만5천원	정경숙 3만원
신충호 1만5천원	이수진 3만원	정명선 6만원
신화식 3만원	이승미 3만원	정무시 3만원
심규암 1만5천원	이승환 1만5천원	정미화 3만원
심종순 1만5천원	이옥자 3만원	정민경 3만원
안경순 3만원	이용욱 3만원	장병태 2만원
안명희 3만원	이유태 3만원	정숙자 3만원
안인술 1만5천원	이인순 1만5천원	정순옥 2만원
안희선 3만원	이임숙 6만원	정시영 3만원

정연이 1만5천원	조영석 3만원	최창숙 1만5천원
정영자 3만원	조인성 1만5천원	한규매 3만원
정옥선 3만원	조정자 1만5천원	한희록 3만원
정옥수 1만5천원	조창신 2만원	허유미 1만5천원
정인철 2만원	진봉희 3만원	홍애분 3만원
정차기 6만원	채옥연 1만5천원	홍유식 1만5천원
정태교 1만5천원	최분규 3만원	황미선 6만원
정혜숙 3만원	최승임 3만원	황준원 3만원
정활수 9만원	최영희 3만원	황지영 3만원
조규인 3만원	최윤희 1만5천원	황학영 3만원
조성자 1만5천원	최정수 4만원	

**총합계 : 6,960,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이강복 3만원 강미경 2만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우정미 신귀화 김미희 조창신 양희숙

**◎ 지출내역**

식 재료비	: 1,808,750원
쌀 구입비	: 2,100,000원
간식 구입비	: 698,850원
케이크 구입	: 198,000원
사무용품비	: 360,000원
물품구입비	: 455,570원
CMS수수료	: 132,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132,000원

**총지출 : 5,885,17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

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  
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  
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굴 1상자, 요플레 30개, 야  
쿠르트 80개, 카스타드 5통,  
미에로화이바 1박스, 박카스  
2통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커피 2박스

박정록 어르신 보호자: 야쿠르트 50개, 요플레 20개

이정화 어르신 보호자: 요플레 12개

한을식 어르신 보호자: 요플레 45개

이시중 어르신 보호자: 굴 1상자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배 1상자, 호두과자 1박스

김숙자 어르신 보호자: 생선화 40만원 상당

정판임 어르신 보호자: 딸기 1팩, 굴 1상자

안태임 어르신 보호자: 두유 1박스, 바나나 5손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커피 1박스

박동심 어르신 보호자: 야쿠르트 40개

박해연 어르신 보호자: 사탕대 2봉

김일순 어르신 보호자: 비타500 1박스

서순연 어르신 보호자: 롤케익 3상자

유세묘 어르신 보호자: 바나나 2상자, 굴 1상자, 토  
마토 1상자, 카스타드 4통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야쿠르트 105개

서운수 어르신 보호자: 우유 48개, 비피더스 40개,  
베지밀 3통, 딸기 2팩

이봉선 어르신 보호자: 굴 2상자, 사과 1상자, 떡 2  
박스(1월)

이봉선 어르신 보호자: 굴 1상자, 방울토마토 1박스,  
떡 2박스(2월)

무하스님 : 야쿠르트 50개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새로 입사하신 분**

우정미 사회복지사 신귀화 요양보호사

양희숙 요양보호사

## 신규 입소 어르신

서순연 어르신 이갑석 어르신 서윤수 어르신  
변영일 어르신 권순주 어르신

##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  
류, 생활용품 등

###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익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전 화 | 053-766-3747, 팩스 053-767-6095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상 새겨드립니다)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 정유년 윤5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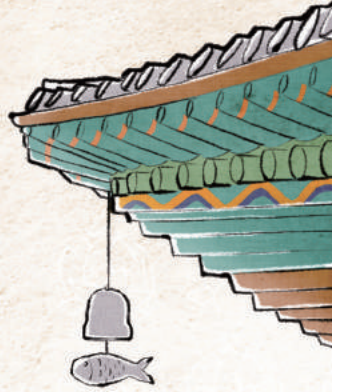
예수재는 죽은 후에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재를 말합니다. 즉, 중생이 살아 있을 때 사후를 위하여 미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왕생극락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윤달이 드는 해에 지내는데 올해에는 윤5월이 들어 법왕사에서는 여법한 예수재를 봉행하려고 합니다. 불자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쌓아 사후 왕생극락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재** : 5월 31일(음. 5월 6일)
- **동참금** : 설판 대시주자 20만원
- **영기천도금** : 위패 1위당 5천원
- **회향** : 7월 18일(음. 윤5월 25일)
- **생전예수재** : 1인당 3만원

### ▶▶49재 일정표

재일	일자	재일	일자
입재	5월 31일 (음. 5월 6일)	사재	6월 27일 (음. 윤5월 4일)
초재	6월 6일 (음. 5월 12일)	오재	7월 4일 (음. 윤5월 14일)
이재	6월 13일 (음. 5월 19일)	육재	7월 11일 (음. 5월 18일)
삼재	6월 20일 (음. 5월 26일)	막재	7월 18일 (음. 윤5월 25일)

# 제33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4월 5일 제33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입재합니다.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5월 23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기도

- 입 재 4월 5일(음, 3월 9일)
  - 초 재 4월 11일(음, 3월 15일)
  - 이 재 4월 18일(음, 3월 22일)
  - 삼 재 4월 25일(음, 3월 29일)
  - 사 재 5월 2일(음, 4월 7일)
  - 오 재 5월 9일(음, 4월 14일)
  - 육 재 5월 16일(음, 4월 21일)
  - 막 재 5월 23일(음, 4월 28일)
- ※영가 접수 받습니다.(매주 화요일 재일)  
※영가 1위당 5000원

## 준비물

-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 공양미 - 3되3홀 또는 15,000원
-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 문의

-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불사 모연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大寂光殿) 장엄 공사를 진행 중인데 최근 웅장한 단집을 완공하였고 현재 불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삼신불 봉안불사도 봉행하고 있습니다. 높이 9m에 달하는 웅장한 대적광전에 주석하실 삼신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부처님 복장물 접수안내

오보(다섯가지 보배)	거부 장사가 되길 원하는 불자	각자지참
오곡(쌀, 보리, 대두, 조, 기장)	음식이 풍요롭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오사(다섯가지 실)	좋은 인연을 가지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향(다섯가지 향)	몸에서 법신, 법계의 향내가 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화(다섯가지 꽃)	아름답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오금(다섯가지 비단)	좋은 옷이 생기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경(다섯가지 거울)	심신이 깨끗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약(다섯가지 약)	번뇌를 멸하고, 건강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필(다섯가지 붓)	학문이 수승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병(다섯가지 병)	집안을 장식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다라니	권력이나 진급을 원하는 불자	2만원
경면주사	삿된 귀신이 침노하지 않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대한불교  
조 계 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ng.or.kr

# 법왕불교대학

##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초기원형불교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중급반	영일스님	초기원형불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 계 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sa.or.kr

##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 제33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2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33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3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 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47일차

4월 1일  
특별법문  
동진스님  
칠곡 망월사 주지



● 48일차

4월 2일  
특별법문  
해월스님  
전 해인승가대학장



● 50일차

4월 4일  
특별법문  
경성스님  
해인사 율주



● 52일차

4월 6일  
특별법문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 일시 : 2017년 2월 14일 ~ 5월 24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40일차	3월 25일 田	성범스님	대전 구봉선원장	48일차	4월 2일 日	해월스님	전 해인승가대학장
41일차	3월 26일 回	일진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49일차	4월 3일 回	마정스님	
42일차	3월 27일 回	철운스님	평택 도원사 주지	50일차	4월 4일 回	경성스님	해인사 율주
43일차	3월 28일 回	관일스님	영천 도솔암 법사	51일차	4월 5일 回	가섭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44일차	3월 29일 回	재원스님	양산 통도사 한주	52일차	4월 6일 回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45일차	3월 30일 回	현석스님	해인사 승가대 강사	54일차	4월 8일 回	성산스님	경기도 의정부포교원
46일차	3월 31일 回	효범스님	부산 부처님마을 주지	55일차	4월 9일 回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백고좌 심사순례법회	
47일차	4월 1일 田	동진스님	칠곡 망월사 주지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